

무항생제 축산(無抗生劑 畜産)

- 사)한국오리협회 고문 장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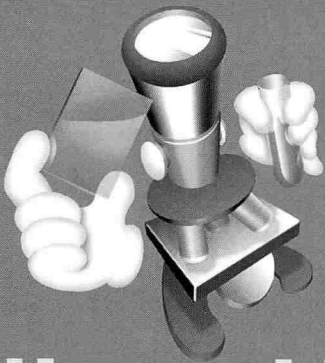
오리기르기 기본수칙(基本守則)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기금과 박사 장병귀



오리산업의 동향(動向)과 2007 전망(展望)

- 사)한국오리협회 대리 나종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 COLUMN



이제 2007년 정유년도 첫 달 달력을 한 장 떼어 버릴 때가 되었다.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12월 중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으니 이젠 나머지 11개월에 한껏 기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잠잠했던 A.I가 어제 충남 아산에서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예견했던 대로 싫든 좋든 AI는 이제 우리와 함께(?) 살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농림부에선 2007년 1월1일부터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 기준"을 시행 한다고 한다. 이것은 유기축산이나 무항생제 축산에서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일반 사육에도 적용이 되는 것

## 무항생제 축산 (無抗生劑 畜産)

사)한국오리협회 고문 장규호

이다. 위 방법을 시행했을 때의 기대효과는 쾌적한 사육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서 가축의 건강을 도모하고, 거기에 따르는 각종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동안 많은 축산인들이 해왔던 방법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히, 오리는 다른 가축에 비해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리소비가 웰빙 바람을 타고 대형화 되면서 공급을 늘리려다 보니, 그 과정에서 질병도 발생하고 농가들 중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상당하다. 심지어 돼지의 경우 약 30%가량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다. 그러니 돼지가 폐사되지 않도록 하는 농가는 그야말로 떼돈을 벌게 된다.

이러던 중에 "무항생제 돼지사육 오히려 질병 줄어"라는

기사를 접했다.

정현구 한국양돈 연구소장이 발표한 이 자료는 도드람 양돈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무항생제 사육은 돼지 스트레스를 최소화, 성장 속도 증가와 돈육품질 향상은 물론 돈육품질 차별화를 통한 경영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에 유익한 세균들이 증식, 돈분 퇴비화를 가속화 시키고 품질 좋은 돈분 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서 자연순환농업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필자가 관여한 마니커와의 양계실험에서도 3년간 평균 육성을 95% 라는 경이적인 기록 외에 관능 검사에서도 우수한 성적이 나왔던 것이다.

이것은 질병이 많은 닭의 경우를 보았을 때 놀라운 기록이다. 이렇듯 무항생제 축산의 성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리업계관계자들은 필자가 보기엔 무신경 그 자체다. 무항생제 축산, 그까짓 거 안 해도 그동안 잘해 왔는데 왜 골치 아픈 것을 하나 생각하겠지만, 금년 3월부터는 경우가 다르다. 왜냐하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무항생제 축산 법안이 3월까지 세부법령을 보완하여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항생제 없이 키울 수 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무항생제 품질 인증을 받지 않고서는 씨가 먹히지 않는다.

업계 인사 중에서는 필자에게 왜 무항생제 오리를 강조하느냐면서 우리는 항생제 없이도 가능한 축종인데, 자꾸 무항생제 운운하면 판매에 악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불만 섞인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 과연 항생제 없이 오리를 키운다면 올해 3월경에 무항생제 품질인증을 받아 보기 바란다.

필자가 보기에는 우리는 어느 축종보다 무항생제 생산이 가능한 축종이다. 그 동안 오리가 이만큼 성

장해 온 것도 웰빙바람 덕이고 소, 돼지, 닭 모두 무항생제 제품이 많이 있는데 오리고기 관련업체중 현재 무항생제를 표방하는 업소는 2군데, 영세업소 뿐이다. 이는 “오리의 체질이 강인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안 써도 잘 크다”라고 홍보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숫자이다.

현재 제일 활발하게 무항생제 축산을 추진하는 곳은 충북이다. 충북도에서는 소, 돼지, 닭 등 주체를 결정하여 각 축종당 10억 원 이상을 지원하였으며, 충북바이오 축산물사업단을 만들어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전남돼지 광역브랜드 사업 일환으로 14억 원 예산으로 무항생제 돼지를 “해두루” 라고 명명 하였고 무항생제 돈육을 시범판매 해본 결과 15% 정도 값이 높음에도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전남도내 9개 지자체와 10개 축협이 참여하는 이 사업에 기대를 걸어 본다. 그 외 전 제주도지사였던 신구범씨가 삼무법인을 만들어 무항생제 축산은 물론 무농약 농산물 생산에 매진하고 있다.

또 아침 방송에도 트랜스 지방의 피해를 인식한 주부들의 소비형태가 바뀌어 트랜스 지방의 염려가 없는 고구마 등이 소비가 10%정도 늘고 가격은 30%정도 뛰었고, 조리기구도 많이 팔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렇듯이 웰빙시대의 화두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는 값이 싸다고 팔리는 것이 아니고, 몸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요즘엔 각 축종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으로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기업은 입지가 점점 좁아져, 결국은 도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리업계 종사자들여!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볼 의향은 없는가?